

2023 문화 화제

<1> 5월 연극 무대 올리는 연출가 후지와라 카나

“아직 끝나지 않은 5월 다룬 ‘푸르른 날에’ 일본에 소개”



후지와라 카나 연출가

25~28일 日한일극장 교류센터 공연 지난해 광주 방문 5월 현장 찾아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 묻는 작품”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희곡 ‘푸르른 날에’가 낭독 무대로 일본을 찾았다. 희곡 ‘푸르른 날에’는 정경진 작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어난 남녀의 사랑이야기와 그 후 30여년 인생 역정이 담긴 글로, 작품성을 인정받아 제3회 차범석희곡상을 수상했다. 한일연극교류센터는 한국의 희곡을 일본에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한일극장 교류센터에서 ‘푸르른 날에’ 낭독 무대를 연다. 이번 낭독 무대는 연극으로 각색된 대본이 아닌 희곡 원작 번역 그대로 관객들에게 선보여진다. 무라야마 테스카가 번역을 맡으며 쓰지 교헤이, 히로카와 마나미 등 13명의 배우가 함께한다. 연극의 연출을 맡은 후지와라 카나 연출가는 지난해 12월 10박 11일의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했다. 후지와라 연출가는 “광주에 가지 않고는 희곡에 몰입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해 현지에서 희곡에 대한 감을 잡기 위

해 방문했다”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첫날인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일정을 보낸 후지와라 연출가는 이후 6일부터 본격적으로 광주와 전남의 5·18 유적지, 관계자 등을 만났다. 먼저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을 비롯해 김정례, 오재일, 김희 전남대 교수 등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희곡 ‘푸르른 날에’의 작가 정경진을 만났다. 정 작가는 희곡이 상연되기까지의 이야기와 상연됐을 당시의 반응 등에 대해 설명했다. 목포 출신 정 작가는 중학생 때 고향에서 시위를 목격하며 광주의 5·18에 대해 알게돼 희곡을 쓰게 됐다고 희곡 작성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는 광주로 돌아와 김경미 오월 어머니의 집 공장, 윤정자 오월 민주 여성회 화장과 시간을 가졌다. 후지와라 연출가는 이 외에도 5·18기념관과 구도청, 5·18 망월동 묘지, 광주 남동성당, 광주시민아파트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담긴 유적지를 방문했다. 후지와라 연출가는 “이번 작품을 맡기 전까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역사 시간에 들어보지만 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불과했다. 한국에 이처럼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희곡 ‘푸르른 날에’를 읽었을 당시 ‘이렇게나 잔혹한 일이 있었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눈

물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자연과 5·18 투쟁 장면의 대비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품에서 그려내는 여성상을 통해 당시 한국의 여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후지와라 연출가는 “당시의 아픔을 쉽게 이해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는 생각을 했고 절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몸과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보고 듣고 느끼며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5·18 유적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방문한 소감으로 후지와라 연출가는 “아직 5·18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며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고통을 알게 됐고 ‘일본인인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 커다란 고통을 어떻게 일본에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후지와라 연출가는 “‘푸르른 날에’는 일본의 정치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더 나아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라며 “‘푸르른 날에’에 낭독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자체를 이해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관객 저마다의 삶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마주해 자신에게 맞는 의미를 찾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젊은 예술인은 ‘광주다움’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광주인문스토리플랫폼사업단 ‘산수짜리’ 등서 온·오프라인 전시

청년 예술가가 바라보는 광주와 광주다움,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 광주인문스토리플랫폼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 해부터 ‘광주다움’을 지난 인문·문화 지원을 수집해 디지털스토리텔링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으로 제작,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중 지난 12월20일 개막한 기획 전시 ‘로스트 토포필리아’는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각으로 광주를 기록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시 주제 ‘로스트 토포필리아(Lost Topophilia)’에 등장하는 ‘토포필리아’는 ‘장소’를 뜻하는 ‘Topo’와 ‘사랑’을 의미하는 ‘philia’의 합성어다. 전시는 오프라인(17일까지, 일·월요일 휴관·오전 10시~오후 6시)과 온라인(5월 17일까지)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광주극장 옆 골목에 자리한 산수짜리와 DDF(광주 동구 충장로 46번길 8-8)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전시에는 박성민·양나희·윤상하·정한결·투나리·윤연우·정덕용·고휘·박화연·윤태준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투나리 작가의 'MPA' 연작

광주 토박이 박성민 작가는 중앙도서관, 계림동 등 광주 모습을 특유의 회화로 풀어냈으며 양나희 작가는 골판지 작업으로 월산동의 풍경을 포착했다. 윤연우 작가는 산수동 공무원 아파트, 관천동 시민아파트 등 1960-70년대 아파트를 소재로 작업했으며 투나리 작가는 재개발 지역에서 수집한 재료로 사라짐과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는 ‘MPA’ 연작을 선보인다. 광주의 다양함을 VR360영상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운영 중이다. 전시장에 비치된 VR 도구를 쓰면 계림동 현백방 거리, 무등산 등 광주의 문화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된 '스토리파크 주제관'

유산과 자연환경, 광주학생운동, 광주의 차별화된 식문화 등을 실감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주)스마트큐브가 맡아 구축한 온라인 전시는 메타버스 플랫폼 월드(WILLD)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전시의 총괄 기획을 맡은 김민지 산수짜리 대표는 “이번 전시가 현실과 가상 세계의 이중적 접근을 통해 작가들은 환경, 역사, 거주공간 등 각자의 삶과 작업의 근간을 소개한다”고 말한다. ‘흥미로운가’ 인스타그램(@inmunistory) 등을 통해 정보를 알 수 있다. 문의 070-4496-2788. /김미은 기자 mekim@

‘불 밝힌 폴리’

충장치안센터 앞 ‘99칸’ 서석초 담벼락 LED 설치

‘불 밝힌 폴리.’ (재)광주비엔날레가 올해도 광주 폴리 아트조명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즌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장소에 위치한 폴리에 연발 연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아트조명을 설치했다. 올해는 동구 충장로와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폴리 2 개소에 설치됐으며 오는 1월 말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된다. 충장치안센터 앞에 위치한 ‘99칸(피터 아이젠만



작)에 ‘HAPPY NEW YEAR’를 설치, 운영한다. ‘99칸’은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광주읍성의 북문터에 설치된 작품이다. <사진> ‘아이라브 스트리트(MVRDV 작)’ 작품과 접해 있는 광주서석초등학교 담벼락에 꽃과 새 모양의 LED

채널조명을 설치했다. 동명동을 찾은 젊은 층의 발길이 잦은 곳으로, 학교 담벼락에 LED 채널 조명과 은하수 조명을 활용, 광주폴리 작품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트조명을 설치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2023년 신년호

연남



동네 산보·둘레길 트레킹... ‘길 위에서 길을 찾다’ 예향 초대석 ‘문학의 울림’ 전하는 신형철 평론가

‘호모 사피엔스’의 장구한 역사와 함께 하는 길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안겨준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나에게 세 가지 오락이 있으니 첫째는 나의 쇼펜하우어, 둘째는 수만의 음악, 마지막은 혼자만의 산책이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하는 길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은 신년호 특집 ‘2023 길 위에서 길을 찾다’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산보와 둘레길 트레킹을 통한 새로운 ‘길’ 찾기에 나선다. 새해에 만나는 예향 초대석 첫 번째 주인공은 ‘문학의 울림’을 전하는 신형철 평론가(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다. 신 교수는 최근 펴낸 ‘인생의 역사’에서 “나는 인생의 욕망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시라고 믿고 있다”고 말한다. 고대 가요 ‘공무도하가’부터 이영광 시인의 ‘사랑의 발명’까지 스물다섯 편의 ‘내가 겪은 시’를 엮은 ‘신형철 시화(詩話)’는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학자와 문학평론가, 에세이스트로 바쁘게 활동하는 신 교수의 문학세계와 글쓰기에 대해 들었다. 신년 기획으로 올 한해 지역 문화계를 미리 살펴본다. 2023년은 문화계 매가 이벤트인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리는 해다. 또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이경희 컬렉션 전시가 광주시립미술관에 이어 전남도립미술관에서도 개막하는 등 화제의 전시가 이어진다. 올 한해 광주·전남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 행사와 다양한 공연들을 소개한다. ‘남도 오디세이 美路(미로미로)’가 향한 곳은 ‘시자의 땅’ 해남이다. 매년 이맘때면 여행자들은 해남 땅길을 찾아 새 출발을 다짐하곤 한다. ‘울돌목 스카이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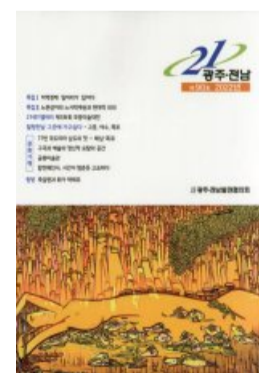
크’와 ‘명랑 해상 케이블카’는 서남권 관광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차별화된 ‘해양자연사 박물관’과 ‘공룡 박물관’, ‘흑석산 치유의 숲’에서 해남의 무늬와 결을 읽기도 한다. 해남의 특산물인 황토고구마를 맛있게 구운 ‘블로고마’와 고구마 먹인 돼지고기를 발효시켜 만든 ‘애돈인’ 소시지, 달콤한 고구마라떼와 고구마식빵을 맛보는 재미는 덩이다. 해외문화기행 코너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로 떠난다. ‘발트해의 아가씨’라는 별명을 지닌 헬싱키는 두 얼굴의 도시다. 청정국가와 디자인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 스웨덴과 인접한 지리적인 조건으로 이들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은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헬싱키는 글곡진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다크투어가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읽을거리로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3 트렌드를 준비했다.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사람들은 올 한해 어떤 도약을 꿈꿀까. 매년 새해의 소비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하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올 한해 키워드로 ‘레빗 점프(Rabbit Jump)’를 제시했다.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10가지 트렌드를 조목조목 살펴본다. 이외에 새해를 여는 화제의 전시로 이어지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소개하고, 연재물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은 제주 4·3평화기념관에서 만난 비통의 역사와 아린 사연들을,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조형물’은 문화도시로 옷을 갈아입은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고성,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은 대구 동동서원을 소개한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21세기 광주 전남’ 제 90호

노사 기정진 조명 세미나·힐링 전남 등 수록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발간하는 ‘21세기 광주 전남’ 제 90호가 나왔다. 특집으로 준비한 ‘지역경제 일자리가 답이다’에서는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공지능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재 양성’(박동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글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알아본다. 또 다른 특집 ‘노년층의 노사학 계승과 현대적 의미’에는 ‘대국 김석규의 성인 지향론과 노사학 정립’(김봉근 원광대 원불교 사상연구원 연구교수) 등의 글이 실렸다. ‘힐링 전남-그곳이 가고 싶다’에서는 국내 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고흥과 ‘한국의 나폴리’ 여수, 목포의 보석같은 섬고향도를 찾아가는 77번 국도를 따라 이어지는 시리즈 ‘남도의 맛’에서는 해남과 목포로 떠나며 박행보 화백의 기증품을 기반으로 문을 연 금봉미술관, 영암 회사장·



완도 세연정·진도 벽파정 등 남도의 정자도 소개한다. 또 박영진 작가가 합천 해인사의 풍광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며 죽림에서 작업하는 박태후 작가도 만난다. 그밖에 38회 무등미대전 대상 작품 시상전도 눈길을 끈다. 지난 1982년 창립한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지금까지 100억원을 투입 625건의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박사학위과정 및 중·고교 학생,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장학사업과 38회를 개최한 무등미술대전이 대표적이며 노사 기정진 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행사도 꾸준히 열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